

SK에너지, 1960억원 투자 항만부이 이설

SK에너지는 9월20일 정부의 울산 신항만 건설사업에 따라 2009년 6월까지 1960억원을 들여 부이를 옮긴다고 공시했다.

부이는 해상에서 원유 수송선박으로부터 원유를 받아내는 시설이며 부이를 이전 설치할 때 파이프까지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고 SK에너지는 설명했다.

<화학저널 2007/09/21>